

[해제]

<견월가(見月歌)>는 달맞이하는 노래이다. 작자미상이나 여성으로 짐작한다. 한지 두루마리에 필사했으며, 음보를 고려하지 않는 줄글의 연속된 형태이다. 다소 난해한 필체로 인해 낱말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앞으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야 할 문제이다. 필사시기는 알 수 없으며, 글꼴 형태로 보아 그다지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 내용은 달을 노래하면서 그 이면에는 여성으로서 한계적 숙명을 안타깝게 토로하고 있다. 옛 고사와 전고의 다양한 활용은 작품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전고의 사용은 작중화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단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으로서 마음껏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헤쳐나가겠다는 용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한탄에 머물고 마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전통사회의 윤리가 가져온 이율배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는 높고도 깊다는 내용은 그 시대의 여성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견월가

히저문 찬하늘에 풍상은 비겨안조
 만염이 죄가되고 빅강이 승칭하야
 전전술기 이저음예 은조이 유정후어
 창을초조 빈치보니 천리타행 궁벽촌미
 너밭기 날초주라 쓸앞의 괴름하며
 문노니 발근달아 멋디나 왓뎡어야
 포류하른 중년니 듀히른 발분뒤이
 그사라른 비압냐 벽히창천 발심이
 벽도두킨 후히늘든 미궁상야 네아니나
 천상인간 인연밋든 월노홍승 네아시나
 상천은하 말근물에 추상강 뒤슈풀에
 황능모 아왕녀영 이섭우현 거군고루
 어를볼 슬피타니 나라무든 저기력미
 청원우 굿이기고 청산녹슈 조흔경치
 풍월주인 빅낙천과 강남풍월 헨다연은
 이빅간후 임조^α라 가을바람 소수한뒤
 강동이 장한간후 으쥬의 번심미루
 천리상스 하여잇고 가련규니 저달빛은
 부제녕여 빈쳐스니 정부에 시름이오
 공영에 낙월보고 그인안면 의심함은
 두조미에 정회로다 적벽강 추칠월에
 수연동산 돛아오니 소등하이 그망노름
 원만이 드어잇고 돌리춘 남산앞에

한가한 도연명이 밧기고 호미기고
 달빛씩고 두나으고 성서미 효전마라
 환산롱월 누늬려나 달아달아 발근달아
 고인도 너루보고 금인도 너르보니
 무궁무전 발근영조 만억년의 한빛칠까
 조흔사람 도예보고 슬픈사람 슬퍼본다
 영허회명 슈이스니 너로면키 어려워서
 삼우야 지난후야 반륜이 되난고나
 나도역시 고행이나 너보고 슬퍼한다
 임술년 오늘달은 다시보기 어려우니
 너보고 축원후조 지공우스 네신처오
 임조업근 후물이니 불용일전 갑안후고
 나도한번 쥬인되조 지금사람 고인봄다
 후세사람 금인봄이 고금선후 일반이라
 너와나와 노라보조
 유효에 술마시니 잔의가득 네빛처오
 사가보월 거닐디어 디영삼민 네빛처오
 불건너면 짜라보고 노리하면 비회하니
 일년명월 근호다고 식날두고 이람인라
 동실동실 원만하재 나의고행 빗취내다
 티킵산 첫계야의 십승지의 추영이라
 동에성성 목여봄은 삼화림슈 얼골쫓고
 서여풍후 만척봄은 니적니창 웅러엇고
 북의쥬우 두고봄은 가나노적 위하엇다
 두두청강 말근물은 황저로 소스나서
 낙동강 원류되야 묘촌하여 흘여잇고
 영저속 아니호디 포조여 날늬들다
 어부여 조디드야 경치도 한가하다
 십리옥야 너른들에 도량속식 경학후고
 디국삼마 조처후다
 여염이 술버하니 화슈정촌 두야잇다
 단하정정 익년하니 포전에 녹축이라
 석발장디 구문걸은 몽전동구 드야이서
 한달녹장 고역시에 울진상적 너식상고
 구르람척 부절이라 모수모구 노든초라
 문어답초 하든다흘 일로에 사철히다
 학발구용 늘근영천 의려지망 어더하라
 안식비쳐 전히다고 싱아주로 하신부모

구아무아 하신부모 사오년 구닌반면
 달보고 느반기사 훈창지화 형제동그
 변상슈옥 하올적에 수일지탄 어찌하랴
 문쥬상종 노든번님 글지으며 싱각어나
 원돈지정 각쳐사가 안도녀구 지나더나
 노도창생 멀고먼디 셔신조차 녕절이라
 엄냉세탁 너어하랴 각조도싱 하여보조
 명월삼월 이십팔일 나의자천 갑일이라
 녹순한쥬 의식하난 팔구남매 그른조식
 산분스리 두엇구나 형제숙절 사오일이
 하나도 못가보니 늪이나 쏘어지고
 사식척독 너저하니 노리조 반의입고
 술하이 경스춤을 아니야 뒤신히라
 축하허는 빈각점디 나의딛선 여하여라
 궁춘궁가 주석하괴 무슨듀리 만비놀나
 송구영신 불원하니 희구지선 도발이라
 아그러나 우리부모 하늘세 축슈하고
 신명게 발원하야 만슈무강 하옵쇼셔
 기망명월 원만할적 느기복록 비나이다
 달아달아 발근달아 신년정원 그망애의
 다시부디 기억하스 천의출락 나의쳐지
 형제쳐조 슈십전구 만가지로 근심일다
 남북풍상 격거우니 슈토불복 조심시오
 슬하의 목수것든
 금슈조정 걸이여겨 궁고벗겨 조심시오
 침선방적 여조적분 쥬스시에 녀조직분
 은공화순 녀조형실 골원긋히 조심시오
 녹림산긋 무리니어 왕니무생 조심시오
 기황슈지 슈전하스 실농될가 조심시오
 남의차천 긋갑호니 무신하니 조심시오
 동겨영 문는새겨
 철노변안 가족싱활 불의지변 조심시오
 화살갓치 빠른새월
 덧업시 늘는무앵 빅발될가 조심시오
 아히형제 액한거고 풍결우 무름스고
 우분마죽 육선노등 차마보괴 어렵고나
 우나우나 닉평싱에 남의적션 긋히것만
 적막한바 업느니라 본섬디로 사라보조

이희가 막죽가니 일만조심 다보내고
신년오니 신연복록 무궁무진 밧므리라
단증한 어린놈은 사십의 만리이라
골격이 충건하고 물상이 화려하니
인걸은 지형이라
가려한 님삼천 평지랄 네넛디아
웅장하고 뭇혹거든 운긔받아 미넛미냐
이십셔거 전시딕여 식인글노 여넛어냐
우리집 옛소리를 다시불여 네넛너냐
넛평싱 굿한사업 한번바녀 네넛너냐
락분영여 복록으로 정공후여 도랭으로
두국지여 푼손으로 한류구소 문장으로
괴망야 망월갓치 둥그넛게 타고나니
일연삼씩 육십인여 잘놉업시 잘그니라
씩년삼만 육천일에 무지년화 편하거라
이의두 삼형제를 장넛괴망 적잔고나
싱의축 난계후나 지세로 보전고나
영안형 영고탑은 비로붓허 이름이니
한번가 스라보즈

[현대역]

견월가

해저문 찬하늘에 풍상1은 비껴앉아
만념2이 죄가되고 백강이 생성하여
전전술개 이저음에 은자이 유정하여
창을차차 비취보니 천리타행 공벽촌3이
너밖에 날차주랴 뜰앞의 걸음하며
묻노니 밝은달아 몇해나 왔었어야
표류하는 노중년이 동해를 밝은뒤에
그사람은 비아니나 벽해창천4 발심이
벽도듯킨 후회하던 미궁상아 네아니나
천상인간 인연맺든 월로적승5 네아니나
상천은하6 맑은물에 추상강 대수풀에
황능모 아왕녀영 이섭우현 거군고루
어를볼 슬피타니 날아오던 저기러기
청원우 끝이기고 청산녹수7 좋은경치
풍월주인8 백낙천9과 강남풍월10 현다면은
이백11간후 임자^α라 가을바람 소루12한테
강동이 장한가13후 의주의 벗님네라
천리상사 하여있고 가련하니 저달빛은
부파념에 비쳤으니 정부의 시름이오
공영에 낙월보고 고인안면 의심함은
두자미14에 정회15로다 적벽강16 추칠월17에
수연동산 돌아오니 소등하여 이망놀음
원만히 들어있고 돌리춘 남산앞에
한가한 도연명18이 발캐고 호미캐고
달빛띄고 돌아오고 성시에 효전마라
환산농월 누리려냐 달아달아 밝은달아
고인도 너를보고 금인도 너를보니
무궁무전 맑은영자 만억년의 한빛일까
좋은사람 도예보고 슬픈사람 슬퍼본다
영허회명 수있으니 너도면키 어려워서
삼우야 지난후에 반륜19이 되는구나
나도역시 고행이나 너보고 슬퍼한다
임술년20 오늘달은 다시보기 어려워니
너보고 축원하자 지공무사21 네신처오
임자없는 공물이니 불용일전 갑안하고

나도한번 주인되자 지금사람 고인본다
후세사람 금년봄이 고금선후22 일반이라
너와나와 놀아보자
유효에 술마시니 잔에가득 내비치고
사가보월 거닐때에 대영삼민 내비치고
물건너면 따라보오 노래하면 배회23하니
일년명월 근소다고 새날두고 이람인다
동실동실 원만하여 나의고행 비치난다
태백산 첫계야에 십승지의 추영이라
동에성성 목여봄은 삼화임수 얼굴좋고
서에봉후 만척봉은 내적내창 웅러였고
북의중중 두고봄은 가나노적 위하였다
두두청강 맑은물은 황저로 솟아나서
낙동강 원류되어 묘촌하여 흘러있고
영저속 아니호되 포조여 발내들다
어부여 조재드냐 경치도 한가하다
십리옥야 너른들에 도량속색 경학하고
기국삼야 조처하다
여념이 슬퍼하니 화수평촌 두어있다
단하정정 익년하니 포전에 육축이라
석발장대 구문걸은 문전동구 두어있어
한달육장 고역시에 울진상적 너식상고
구르람척 부절이라 모수모구 놀던차라
문어답초 하던다을 일조에 사철했다
학발구용 늘근영천 의려지망 어더하라
안색비쳐 전해다고 생아주로 하신부모
구아무야 하신부모 사오년 그린반면
달보고 내반기사 훈창지화 형제동기
변상수옥 하울적에 수일지탄 어떠하라
문쥬상종 놀던벗님 글지으며 생각더냐
원돈지정 각처사가 안도녀구 지났더냐
노도창생 멀고먼데 서신24조차 영절25이라
영량세태26 어이하라 각자도생27 하여보자
명월삼월 이십팔일 나의자친28 갑일29이라
육순한주 의식하는 팔구남매 기른자식
산분살이 두었구나 형제속질30 사오인이
하나도 못가보니 눈이나 또어지고
사세척독 널자하니 노래자31 반의32입고

슬하에 경사춤을 아이야 대신해라
축하하는 빈객접대33 나의대신 여하여라
궁춘궁가 주식하고 무슨두리 만비놀나
송구영신34 불원35하니 희구지심36 도발이라
아그러나 우리부모 하늘께 축수37하고
신명38께 발원39하여 만수무강40 하옵소서
기망명월41 원만할적 누개복록42 비나이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신년정월 기망에의
다시부디 기억하사 천의춘락 나의처지
형제처자 수십전구 만가지로 근심일다
남북풍상 겪어오니 수토불복43 조심시오
슬하의 먹는것은
금수사정 곁이여서 굶고벗겨 조심시오
침선방적44 여자직분 주사시에 여자직분
온공화순45 여자행실 골원끝에 조심시오
녹림산객 무리내어 왕래무생 조심시오
기황수지 수전하사 실농될까 조심시오
남의차전46 못값으니 무신하니 조심시오
동서영 문는새겨
철로변안 가족생활 불의지변47 조심시오
화살같이 빠른세월 덧없시 늙은무양48
백발49될까 조심시오
아이형제 액한거늘 풍결을 무릅쓰고
우분마족 육신노등 차마보기 어렵고나
우나우냐 내평생에 남의적선 끝에것만
적막한바 없느니라 본성대로 살아보자
이해가 막죽가니 일만조심 다보내고
신년50오니 신년복록 무궁무진51 받으리라
단중한 어린농은 사십의 막내이라
골격52이 출건53하고 물상54이 화려하니
인걸은 지형이라
가려한 님삼천 평지를 네날았나
웅장하고 미혹커든 운기받아 네날았나
이십세거 전시되어 세인글로 네날았나
우리집 옛소리를 다시울어 네날았나
내평생 끝한사업 한번받아 네날았나
락분영여 복록으로 정공하여 도령으로
두국지어 풍산으로 한류구소55 문장으로

기망야 망월같이 둥그렇게 타고났나
일년삼백 육십일여 잘놓없이 잘가니라
백년삼만 육천일에 무재영화56 편하니라
이의두 삼형제를 장래지망 적잡구나
생의축 관계하나 지세로 보전고나
영안형 영고탑은 비로부터 이름이니
한번가 살아보자

[각주]

- 1) 풍상(風霜) :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많이 겪었음을 비유하는 말.
- 2) 만념(萬念) : 여러 가지 많은 생각.
- 3) 궁벽촌(窮僻村) : 매우 후미지고 으스스한 마을.
- 4) 벽해창천(碧海蒼天) :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 5) 월로적승(月老赤繩) : 전설상 월하노인이 가지고 있다는 주머니의 붉은 끈을 말하는 것으로 이 끈은 남녀의 인연을 맺어 준다고 함.
- 6) 상천은하(上天銀河) : 하늘의 은하수.
- 7) 청산녹수(靑山綠水) : 푸른 산과 푸른 물이라는 뜻으로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이르는 말.
- 8) 풍월주인(風月主人) :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등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 9) 백낙천(白樂天) : 백거이(白居易, 772-846) 자(字)는 낙천(樂天), 호는 취음선생(醉吟先生), 향산거사(香山居士)이다. 당나라 때 낙양(洛陽) 부근의 신정(新鄭)에서 태어났다. 그의 시는 경쾌하지는 않고, 구세제민을 주제로 삼아 약간 무겁다.
- 10) 강남풍월(江南風月) : 강남의 바람과 달. 곧 풍류.
- 11) 이백(李白) : 중국 당나라의 시인(701-762). 자(字)는 태백(太白). 호(號)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젊어서 여러 나라에 만유(漫遊)하고, 뒤에 출사(出仕)하였으나 안사의 난으로 유배되는 등 불우한 만년을 보냈다. 칠언 절구에 특히 뛰어났으며, 이별과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현종과 양귀비의 모란연(牧丹宴)에서 취중에 <청평조(淸平調)> 3수를 지은 이야기가 유명하다.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이라 부른다.
- 12) 소루(疏漏) : 생각이나 행동이 꼼꼼하지 않고 거침.
- 13) 장한가(長恨歌) :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가 지은 서사시로 시 내용은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잃은 한을 칠언(七言) 120구로 노래한 것임.
- 14) 두자미(杜子美) :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712-770)인 두보(杜甫)를 말한다. 자미(子美)는 자(字)이며, 호(號)는 소릉(少陵), 공부(工部), 노두(老杜)이다. 율시에 뛰어났으며, 긴밀하고 엄격한 구성, 사실적 묘사 수법 따위로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였다. ‘시성(詩聖)’이라 부르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힌다.
- 15) 정회(情懷) : 생각하는 마음.
- 16) 적벽강(赤碧江) :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감도는 강.
- 17) 추칠월(秋七月) : 음력 7월.
- 18) 도연명(陶淵明) : 중국 동진시대의 시인(365-427). 이름은 잠(潛)이고, 호(號)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연명은 자(字)이다. 405년에 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 되었으나,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다.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나라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이라 부른다.
- 19) 반륜(半輪) : 반달의 잘못된 표기.
- 20) 임술년(壬戌年) : 1922년으로 추정됨.
- 21) 지공무사(至公無事) :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 22) 고금선후(古今先後) : 옛날과 지금.
- 23) 배회(徘徊) : 아무 목적도 없이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

- 24) 서신(書信) : 편지.
- 25) 영절(永絶) : 소식이나 관계 또는 생명이나 혈통 등이 영원히 끊어져 아주 없어짐.
- 26) 염량세태(炎凉世態) :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7) 도생(圖生) : 살아 나가기를 꾀함.
- 28) 자친(慈親) :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29) 갑일(甲日) : 천간이 갑(甲)으로 된 날로 곧 환갑(還甲)을 말함.
- 30) 형제숙질(兄弟叔姪) : 형제와 삼촌 그리고 조카.
- 31) 노래자(老萊子) :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학자(?~?)로. 70세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여 늙은 부모를 위안하였다고 함.
- 32) 반의(斑衣) : 알록달록한 옷. 색동옷.
- 33) 빈객접대(賓客接待) : 손님을 맞이함.
- 34) 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35) 불원(不遠) : 멀지 않음.
- 36) 희구지심(喜懼之心) :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 37) 축수(祝壽) : 오래 살기를 빚.
- 38) 신명(神明) : 천지(天地)의 신령.
- 39) 발원(發願) : 신에게 소원을 빚.
- 40) 만수무강(萬壽無疆) :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
- 41) 기망명월(既望明月) : 음력으로 매달 열엿셋날에 밝게 뜬 보름달.
- 42) 복록(福祿) :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르는 말.
- 43) 수토불복(水土不服) : 물이나 풍토가 몸에 맞지 않아 위장이 나빠짐.
- 44) 침선방적(針線紡績) : 바늘과 실로 길쌈하는 행위.
- 45) 온공화순(溫恭和順) : 성격 등이 온화하고 공손함.
- 46) 차전(借錢) : 돈을 빌림.
- 47) 불의지변(不意之變) : 뜻밖에 당한 변고.
- 48) 무양(無恙) :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 49) 백발(白髮) : 하얗게 센 머리털.
- 50) 신년(新年) : 새해.
- 51) 무궁무진(無窮無盡) :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
- 52) 골격(骨格) : 체격(體格)과 같은 말.
- 53) 출건(出健) : 출중(出衆)과 비슷한 말로 뛰어나다는 뜻.
- 54) 물상(物像) : 눈에 보이는 물체의 생김새와 상태.
- 55) 한류구소(韓柳歐蘇) :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韓愈, 柳宗元, 歐陽脩, 蘇軾.
- 56) 무재영화(無災榮華) : 재앙이 없고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